

통일 칼럼

변화하는 북한 연예인

북한에서 연예인은 대중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체제 유지와 당의 사상 전파에 활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엔 연예인 인물을 부각하고, 또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가수 출신 현송월부터 최근 인기를 끄는 북한의 연예인, 또 변화하는 북한의 선전술이 눈에 띈다. 평양시 중구역 보통강 인근에 있는 야외 빙상장 2024년 개장 이후 화려한 조명 아래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겨울철 명소가 자리매김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인민들과 친숙해진 낯익은 모습들도 보인다. 지난해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준 텔레비전 연속극 '백학별의 새봄'의 주역, 말쑥꾸러기 병욱이의 모습도 보인다. 대중 놀이 시설을 찾은 연예인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몇 년 전 북한을 떠난 탈북민에게 무척 생경한 장면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연예인은 대중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스타가 아니다. 당국



정복규  
논설위원

에 의해 체제를 선전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소위 당의 나팔수로 키워진다.

그중에서도 영화배우는 수령 우상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수령 찬양과 우상화라는 목적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 배우 개인의 연기력이나 대중적 매력은 평가받기 힘들었다.

이후 영화와 음악에 관심이 남달랐던 김정일은 연예인을 훨씬 화려한 존재로 부각해 체제 선전 전면에 내세웠다. 변화무쌍한 연기로 1980년대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배우 오미란이 대표적이다.

1990년, 제1회 뉴욕 남북영화제 최우수 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오

미란은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력을 갖춘 배우다.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했던 민수대예술단 무용수 조명애도 빼놓을 수 없는 북한 연예인 중 한 명이다. 당시 눈에 띄는 외모로 남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조명애는 한국 휴대전화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음악 분야에도 여러 명의 연예인이 배출됐다. 현재 선전선동부 부장의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핵심이 된 현송월과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실주 역시 가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과거의 북한 연예인들이

대중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면 김정은 시대의 연예인들은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문을 연 주역은 '모란봉악단'이다. 과거 지방 순회공연 당시 북한 매체는 모란봉악단의 대기실 등 무대 뒷모습을 가감 없이 공개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대중에 다가서는 북한 연예인들의 외적 모습이나 연출 방식이 점점 한국 스타일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백학별의 새봄'에서 검사 '영덕'역을 맡은 배우 최현 역시 세련된 이미지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선전술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장기적으로 붙잡아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화를 접하며 눈높이가 높아진 젊은 세대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덜 세련된 북한 연예인의 외모나 이미지를 앞세운 선전수법은 더 이상 신선한 자극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세련된 연출을 선보여도 내용은 결국 체제 선전이라는 본질을 벗어나기 힘들다.

기고문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산불 소식 이 들려온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타고 번지는 불길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과 도심까지 위협하며 대형 재난으로 돌변한다.

우리는 흔히 산불을 자연재해로 인식하지만, 그 시작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불행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난 2025년 3월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은 전국 곳곳으로 번지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고, 3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비극은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였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6년 1월, 전남 공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수십 배 면적의 입야가 소실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었다. 이는 산불이 특정 시구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상시적 위협임을 시사한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3월, 고창에서 발생한 정읍 방면으로 확산된 산불은 도심 인접 지역을 위협하는 이른바 '도심형 산불'의 공포를 각인시켰다.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 삶의 터전이 불타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했다.

산불이 더 이상 깊은 산속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안팎까지 침범할 수 있

“산불, 재난 아닌 경고”



최동수  
남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

음을 보여준 것이다.

풍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불 발생 건수 중 남원 지역이 33건(2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주(10.9%)나 완주(10.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지역

의 산불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산불 발생 원인이다. 전체 산불의 82.7%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등산객의 담뱃불, 농촌 지역의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전체 산불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산불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불 예방은 소방관이나 공무원만의 몫이 아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 산림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대형 재난의 불씨를 끌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코스닥 1100 돌파

국내 증시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천 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드디어 5천백 선을 넘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상승했다.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첫 종가 5천 돌파라며 축포를 터뜨린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5,100선까지 넘어섰다.

장중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유례없는 상승세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경제 대국 독일을 넘어서는 기록도 세웠다.

코스피로 자금을 이끈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관세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부 견어냈다.

실적 발표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각각 16만 점자, 84만 닉스로 등극했고, 퍼지컬 AI에 배

터리를 공급할 거라는 기대에 이차전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주가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코스닥 150' 이라든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ETF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순매수세로 표출이 됐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락했는데,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달러 약세가 관측되는 듯한 발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는 달러의 가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달러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달러당 1422원 50점은 주간 증가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키오스크 유명무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비난의 소리가 크다.

전주 시내 어느 시각장애인인 키오스크가 있는 카페를 찾았다. 한참을 더듬어 봤지만 음성 안내 기능을 찾을 수 없어 주변에 실패하고 말았다.

무슨 뜻인지 모를 점자만 적힌 곳도 있었다. 처음에는 점자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그러나 이 점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무인 매장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아예 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때 따라 매장에 키오스크를 두려면 장애인도 편하게 쓸 수 있

도록 보조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작된 공공기관 등을 시작으로 점점 시행됐는데,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어디든 심지어 마트도 키오스크로 다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없는 데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곳은 실제로 없는 실정이다. 예외로 돼 있는 50세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장 역시 호출 벨이나 보조 인력을 뒀어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카페 사장은 "보조 인력을 뒀어 합니까? 그것도 사실 처음 들었는데 그게 저 같은 규모도 해당인가요?"라고 되묻는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분간 과태료 차분보다는 매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